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1호 [루게 제24849호] 주체104(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인 룡군중장 윤영식 동지, 조선인민군 제287대련합부대 부대장 룡군중장 김금철 동지, 부대정치위원 룡군소장 리영남 동지와 신도방어중대의 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세차게 휘날리고있는 신도방어중대에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미제승냥이들과 졸개무리들이 어리석게도 감히 덤벼든다면 가증스러운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탕 쳐버리고야말 멸적의 의지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2005년 7월 중대에 오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표식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른 새벽에 신도방어 중대를 찾으시였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섬방어대들에 강력한 화력타격수단들을 더 배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력타격수단들의 배치와 진지설비 그리고 린접과의 화력협동, 화력임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콩창고, 축사, 무난방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교양실에서 진행되는 정치사학을 보시고 정치사상적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으며 군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양시켜야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정중히 건립한 현지지도표식비를 보니 초소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보답하려는 중대군인들의 뜨거운 충정이 헤아려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중대군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자욱이 새겨져있는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한다는 영예와 사회주의 조국의 동족관문을 지켜선 진초병이라는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수호의 길, 애국충정의 길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움으로써 장군님의 령군업적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섬을 뒤덮은 수림과 병영을 감싸고있는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보시고 나무가 짝 찻다고, 불철이나 여름철에 보면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가 훌륭히 실현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력종합훈련실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중대에서 훈련실을 잘 꾸리고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명포수운동을 군인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모든 군인들을 일당백의 명포수들로 키우며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중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신도방어중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을 지키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해상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해상에서 철저히 소멸할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방침을 철저히 판철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역세게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에서 컴퓨터자료전송체제를 세워준 결과 군인들이 매일 인민군신문을 정상적으로 보고 당의 목소리를 듣고있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군인들을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춘 팔방미인들로 키우자면 그들속에서 독서기풍을 세우며 중대에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신도방어중대를 시찰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실의 온도도 가늠해보시고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리용실태도 알아보시였으며 식당과 풍창고를 돌아보시면서는 군인들의 식락을 푸짐하게 하자면 수산, 축산, 농농사의 3대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축사를 돌아보시고 염소를 비롯한 짐승들이 정말 많다고, 자체로 고기문제를 풀고있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 중대에서 당의 군사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다고, 앞으로 중대를 당의 의도대로 군인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더 잘 꾸려나가라고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물을 떠나 외진 섬에 살림을 펴고 남편들의 군사정치사업성과의 비결은 해당 단위의 지휘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이곳 중대지휘관들의 일흔세와 일흔네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앞으로 일을 계속 잘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드락과 잇닿아있는 동해안군의 전초기지인 신도방어중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오늘의 월미도로 확고히

전번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대를 떠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이 눈물을 쏟으며 따라섰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부두가로 달려나와 폭풍같은 <만세!>를 부르기도 부르시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크나큰 영광과 꿈만 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신도방어중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원수각하 나는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의 3월8일혁명 52돐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시 각하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국내외적대세력들의 도전에 맞서싸우고있는 수리아인민의 승리를 확신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해주시는 각하와 그리고 친선적인 귀국의 립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5년 3월 9일 디마스끄

## 래양절경축준비위원회 스위스에서 결성

래양절경축 스위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일 바젤에서 진행되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 4월 16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영화감상회 등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리셔스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포트 루이스

모리셔스공화국 대통령  
**라즈케쉬우르 푸라그각하**

나는 모리셔스독립 47돐과 모리셔스공화국헌포 2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의 노력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4(2015)년 3월 6일

평양

## 행성에 굽이친 선군래양칭송의 대하 광명성절을 세계 5대륙에서 성대히 경축

평양

주체의 선군래양, 회세의 천출위인 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타게 하는 광명성절.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조선혁명과 세계자유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끝없는 흠모심은 칭송의 대하로 행성에 뜨겁게 굽이쳤다. 광명성절을 가장 뜻깊고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올해초부터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의 주체 밑에 활발히 벌어졌다. 1월 9일 나이지리아 아부자, 베닌 포투누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3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전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후 로씨야, 몽골, 인디아, 타이,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영국, 도이쉴랜드, 에스빠냐, 우간다, 에리트레, 브라질, 페루, 도미니카 등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었다. 특히 로씨야의 모스크바, 하바루스크, 연해변강, 울리아누스크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9개의 경축준비위원회들이 편이 결성되었다. 해당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의 인사들은 결성식들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진보적인류의 웅대한 도리라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며 길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각국의 준비위원회들과 정부, 정당, 단체들의 주체로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강연회, 좌담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에 꽃바구니를 장식하는 행사가 로씨야 하바루스크시 제11중학교에서 있었다. 활짝 피어난 위인칭송의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몽골 울란바타르와 중국 대련, 심양의 김정일화 전시회장들은 매혹과 찬란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에파도르 기도, 페루 리마에서는 정당, 단체들의 광명성절경축 중앙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5대륙의 방방곡곡에서 편일 벌어진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에서는 선군래양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왔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장군, 참다운 애국자,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이다. 그이께서는 한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망의 강군으로, 조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단지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은 우리의 심장에 안아오신것이라고 칭송하였다.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의 업적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승리만을 안아오신것이라고 칭송하였다. 김정일장군 탄생 73돐경축 베닌 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끝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신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고 동방에 평화의 전초선이 믿음직하게 뿌려지게 되었다. 조선이 막강한 전쟁역세력까지 갖추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로 이 나라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끝장났다. 김정일동지께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쌓으신 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통일지지 쿠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조선로동당과 영웅적조선인민군 군인들, 인민들과 함께 계시였으며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시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전진화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고 말하였다. 네팔녀성, 어린이 및 사회복리상은 위대한 장군님을 회세의 정치원리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렸다. 방글라데슈 민용항공 및 관광상인인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사상리론, 탁월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선군혁명명도로 조선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향적극면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해나가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자유투표투쟁을 위한 페루민족독립운동, 이팔리아의 공산당, 영국선군정치연구회, 방글라데슈인민혁명위원회, 따위기스판공산당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성명, 담화를 발표하여 절세위인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격찬하였다. 한편 각국의 출판보도물들이 김일성주석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시고 인류자유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의 혁명생애를 적극 소개선전하였다. 신문, 텔레비전방송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혁명활동사진 문헌들을 모시였다. 나이지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 저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평생 김일성주석의 높은 뜻을 받들어 모든것을 다 바쳐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오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국의 부강번영은 이런 애국자들에 의해 앞당겨진다

## 중앙전력설계연구소 공훈설계가 김창진동무에 대한 이야기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누구나 이 땅의 부강번영을 바란다.  
내 조국의 부강번영, 이것은 우리의 꿈이고 리상이며 최후승리의 목표이다.  
하더니 이 땅의 부강번영은 어떻게 앞당겨지는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 맡은 조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대 홍안의 시절로부터 80여년의 오늘까지 나라의 수력구조물설계와 건설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중앙전력설계연구소 공훈설계가 김창진동무.  
우리 이제 여기에 그가 걸어온 값높은 삶의 자취자취를 더듬어본다.

방도는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시추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었다.  
김창진동무는 석회암공동지반에 맞는 인제설계와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상안하기 위해 피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시추기와 착정기 등 설비들이 도착하고 콘크리트타설준비가 시작되었다.  
낮에 밤을 이어 연 수심1m의 시추와 10여만의 콘크리트혼합물주입을 위한 전동기 계속되던 그때 김창진동무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었다.  
(만년연계를 쌓아준 공동구간의 타입설계를 내 논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러자면 반드시 시추구멍으로 땅속에 들어가 보아야 한다.)  
머리끝 익힌 생각을 내놓자바람으로 그것은 반대에 부딪혔다.  
정신있다가, 몸이 바름을 매고 직경이 4.2cm밖에 안되는 시추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안일 소극과 칼날같은 석회암지대의 돌출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치려 하는가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김창진동무는 말했다.  
《있었습니다. 외국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나는 발전소엔제의 견고성과 안정성을 책임진 설계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가야 만년연계를 일제세움으로써 조선사람의 본체, 조선지식인의 기질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어야!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근에 자원도 부족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시추구멍을 타고 메아리쳐 들려오는 그의 노래소리에 한동안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물거머린 눈을 슬쩍이며 목소리를 합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로운 인민의 영광과 맑아 따서 이 조건 길이 받들세

않았다. 병사들과 함께 함마를 휘두르고 맞들이진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모닥불가에 앉아 혁명군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열렬한 조국애,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심장에 आरो세기였다.  
하기에 그는 설계집단과 힘을 합쳐 그러면 난관앞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정신과 열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독특한 인제설계를 완성하고 방향성발파에 의한 인제쌓기공법, 러파포에 의한 진흙결속공법 등 합리적인 공법들을 연구완성하여 콘크리트 수백만 m<sup>3</sup> 분량의 인제를 지방재료인제로 훌륭히 일떠세우고 발전소엔제의 조거수술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만년연계에 부흥강국이 있다!  
이것이 그의 가슴속에 간직된 철리었던 것이다.  
사는 힘도 노도 내밀어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신념을 안고 조국의 만년연계를 쌓아 올리면서 부흥강국을 앞당기는데 이 나라 지식인으로서의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절감한 그였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에 이어 원수들의 반공좌괴로된압박중으로 나라의 전력사정이 더욱 긴장되었던 그때 그는 일흔을 훨씬 넘긴 나이에 주저없이 인제보강공사를 책임지고 나섰던 것이다.  
그때에도 김창진동무는 물막이물막압사공법, 부가물침가공법, 맞추임공법 등 혁신적인 공법들을 연구도입하여 빠른 기간에 인제의 새는 물을 종전에 비해 90% 이상 줄이게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가 연구도입한 공법들은 인제의 새는 물을 막기 위한 좋은 경험으로 되었다.  
김창진동무가 중앙전력설계연구소 설계사로 첫발을 내딛은 때로부터 58년 세월이 흘렀다. 가나간 그 나날 김창진동무가 이 땅의 산밭들에 세겨온 자취는 정녕 그 얼마나인가.

### 만년연계와 초석

강계청년발전소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제세운 첫 수력발전소이다.  
때는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하던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주려 천리만의 기세로 내달리던 주재 47(1958)년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의 호소를 피하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건설자들이 각지에서 발전소건설장으로 속속 달려왔다. 누구도 발전소 건설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건설자들의 가슴속에는 열정과 포부와 망망으로 끓어번졌다.  
우리의 설계, 우리의 힘으로 나라의 첫 수력발전소를!

들의 책동을 단호히 첫바치며 인제설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그들은 인제건설에 우리 식의 공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도 입고나왔다.  
그러던 어느날 설계자들은 시공기일이 오래 걸리고 공정상 복잡한 대상의 하나인 1호물길굴벽공사에서 굴절압사콘크리트공법을 연구하고 도입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김으로써 설계자들속에서 황금이 쏟아진다는 아버지수령님의 과분한 치하의 교시를 전달받게 되었다. 김창진동무는 머릿끝 돌리는 심장을 안고 산파대기로 달음쳐올랐다. 멀리 아버지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 한생 내 나라의 인제를 일제세우는 조선의 설계자로 살리라!)

김창진동무와 설계집단은 이어 서두수발전소 원본연계설계를 오늘도 앞선 기술의 하나로 되어있는 2종공률이인제설계로 완성하여 또다시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리상적인 설계이라고, 해만 좋으면 되었었다는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았다.  
거듭되는 아버지수령님의 치하의 교시는 설계자들에게 지혜의 나래를 더 활짝 펼쳐 주었다.  
그것을 원동력으로 하여 이들은 조국땅 방방곡곡을 주름잡으며 발전소들을 일제세웠고 조국은 산업의 동력이며 심장인 전력중심의 거대한 동음속에 사회주의공업화 명마루로 기세 좋게 치달아올랐다.  
하더니 무엇이 자그마한 인제를 설계해본 경험도 없는 그들로 하여금 첫걸음부터 첨단을 목표로 돌진해나갈수 있게 하였는가.  
자기들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설계만큼 조국이 전진한다는 사랑감,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세계를 앞서나가야 한다는 민족적 자존심이였다.  
만년연계의 밑에는 바로 김창진동무와 같은 우리 지식인들의 불타는 조국애와 강한 민족적 자존심이 역각같이 일컬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어느 한 곳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때였다.  
곧 김창진동무를 비롯한 유능한 설계자들이 망라한 인제설계집단이 모이였다. 현지에도 도착하여 인제위치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그들은 너무나 엄청난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곳이 석회암공동지대였었다.

진정 그것은 인제나 이 땅, 이 조국을 안고 사는, 깨닫고 열렬하고 정의로움 사랑만이 부를수 있는 심정의 노래였다.  
웅장하게 일떠선 발전소엔제는 세계에애 조선사람들의 넓고 열정, 힘과 기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후 김창진동무는 어떻게 땅속에서 노레부 생각을 다 하였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의 하늘이, 이 나라의 지식인으로 사는 것이 이면이로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노래가 나왔다. 그때 전제말입니다.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민족적자존심, 그것이 곧 지식인의 애국심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김창진동무가 권양기바름을 타고 들어갔던 발전소엔제의 기초자리는 지금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푸른 잎새 설레이는 거목의 뿌리와도 같이 한생을 발전소엔제의 초석으로, 밑둥치로 살아가는 그의 위훈은 조국의 하늘을 떠받치고선 만년연계에 새겨져 빛나고 있다.

김창진동무의 앞가슴에 영웅메달은 없었다. 높은 학위학직도 없었다. 그러나 수 60년 세월 나라의 수력자원개발에서 수많은 미개척분야를 점령하며 창조와 위훈만을 떨쳐온 그의 값높은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말하고 싶었다.  
부흥강국의 역력 거둔인 만년연계가 애국의 창조물이라면 그 기초는 세계를 앞서 나갈 열망에 불타는 조선지식인들의 민족적자존심이다!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생각만 해봐도 가슴들먹이는 벽한 현실은 모두의 심장을 눌렀게 하였다.  
바로 그들속에 우리의 주인공 김창진동무도 있었다. 최정조, 박찬영동무들이 속한 설계집단을 책임지는 그는 즉시 인제설계에 달려들었다.  
설계집단의 주되는 관심은 인제를 어떤 형식으로 하겠는가 하는 것이였다.  
산맥과 탐구속에 낮과 밤을 보내던 그들은 인제를 증격식인제나 아닌 다른 형식으로 설계할 것을 결심했다.  
그들의 대답한 계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것은 당시 수력구조물설계에서는 앞선 기술의 인제형식이였다.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기고 건설자들도 절약할수 있는 그 설계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인제건설이 처음이라고 해서 남들이 오면 계단도 다 파고 올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애국으로 피끓는 이 심장이 우리의 기술, 우리의 실력을 담보하고있는데 주저할것이 무엇인가.  
그러던 어느날 옷가방에서 내려왔다는 한 사람이 현장사무원에 들어섰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김창진동무에게 인제설계에 대한 설명부터 오구했다. 그런데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팡- 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방안에 울려퍼졌다.  
《정신있다가, 튀피리던 한 기술을 믿고 그레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하는 설계안을 감히 우리에 올려보내? 큰 나라의 기술적창조가 없으면 지금엔제는 들쩍치고 어느 인제도 어렵잖아 당장 걸어치우!》  
다치던 터질듯 한 팽배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김창진동무의 저력있는 목소리가 또박또박 울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려주신 우리 나라 국장에는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가 당시에 하네비처럼 설기는 외국적인줄 아는가?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발전소엔제를 일제세우고야 마랴오!》  
김창진동무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밖으로 뛰쳐나왔다. 멀리로 건설자들이 부르는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발전소엔제의 터전이 우뚝이 언겨졌다.  
해서인지 그의 눈앞에 전하의 찬상이 생생히 떠올랐다. 쏟아져내리는 줄줄한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던 학교며 마을들... 전쟁이 끝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도 생각났다. 다른 대학이 아닌 평양건설대학(당시)으로 등을 떠밀며 고향의 부모님과 어른들은 말했다.  
대학공부를 잘해서 조선이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인 한국놈들의 코대를 다시 한번 분질러놓아야 하고...  
그는 피가 나게 대학공부를 하였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력구조물의 건설력사와 앞선 기술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나갔다. ...  
상남에서 깨어난 김창진동무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설계도 조선의것, 앞선 기술도 조선의것이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  
애국열에 불타는 김창진동무와 젊은 설계집단은 교조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

를 찾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1분 간격으로 들려오듯 안면모양으로는 주먹만 한 방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2.0m, 3.0m... 드디어 지하 3.2m 깊에서 정제같은 공동구간이 발견되었다.  
하, 들, 셋!  
한번에 공동구간을 찾아내고 콘크리트타입설계를 제논으로 확인한 그의 입에서는 저도드르레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5m, 10m...  
김창진동무는 한참동안 흥분했다. 땅속에서 그를 찾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1분 간격으로 들려오듯 안면모양으로는 주먹만 한 방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2.0m, 3.0m... 드디어 지하 3.2m 깊에서 정제같은 공동구간이 발견되었다.  
하, 들, 셋!  
한번에 공동구간을 찾아내고 콘크리트타입설계를 제논으로 확인한 그의 입에서는 저도드르레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우리 수력발전소가 그려주신 우리 나라 국장에는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가 당시에 하네비처럼 설기는 외국적인줄 아는가?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발전소엔제를 일제세우고야 마랴오!》  
김창진동무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밖으로 뛰쳐나왔다. 멀리로 건설자들이 부르는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발전소엔제의 터전이 우뚝이 언겨졌다.  
해서인지 그의 눈앞에 전하의 찬상이 생생히 떠올랐다. 쏟아져내리는 줄줄한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던 학교며 마을들... 전쟁이 끝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도 생각났다. 다른 대학이 아닌 평양건설대학(당시)으로 등을 떠밀며 고향의 부모님과 어른들은 말했다.  
대학공부를 잘해서 조선이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인 한국놈들의 코대를 다시 한번 분질러놓아야 하고...  
그는 피가 나게 대학공부를 하였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력구조물의 건설력사와 앞선 기술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나갔다. ...  
상남에서 깨어난 김창진동무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설계도 조선의것, 앞선 기술도 조선의것이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  
애국열에 불타는 김창진동무와 젊은 설계집단은 교조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

《우리 수력발전소가 그려주신 우리 나라 국장에는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가 당시에 하네비처럼 설기는 외국적인줄 아는가?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발전소엔제를 일제세우고야 마랴오!》  
김창진동무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밖으로 뛰쳐나왔다. 멀리로 건설자들이 부르는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발전소엔제의 터전이 우뚝이 언겨졌다.  
해서인지 그의 눈앞에 전하의 찬상이 생생히 떠올랐다. 쏟아져내리는 줄줄한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던 학교며 마을들... 전쟁이 끝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도 생각났다. 다른 대학이 아닌 평양건설대학(당시)으로 등을 떠밀며 고향의 부모님과 어른들은 말했다.  
대학공부를 잘해서 조선이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인 한국놈들의 코대를 다시 한번 분질러놓아야 하고...  
그는 피가 나게 대학공부를 하였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력구조물의 건설력사와 앞선 기술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나갔다. ...  
상남에서 깨어난 김창진동무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설계도 조선의것, 앞선 기술도 조선의것이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  
애국열에 불타는 김창진동무와 젊은 설계집단은 교조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

《우리 수력발전소가 그려주신 우리 나라 국장에는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가 당시에 하네비처럼 설기는 외국적인줄 아는가?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발전소엔제를 일제세우고야 마랴오!》  
김창진동무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밖으로 뛰쳐나왔다. 멀리로 건설자들이 부르는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발전소엔제의 터전이 우뚝이 언겨졌다.  
해서인지 그의 눈앞에 전하의 찬상이 생생히 떠올랐다. 쏟아져내리는 줄줄한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던 학교며 마을들... 전쟁이 끝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도 생각났다. 다른 대학이 아닌 평양건설대학(당시)으로 등을 떠밀며 고향의 부모님과 어른들은 말했다.  
대학공부를 잘해서 조선이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인 한국놈들의 코대를 다시 한번 분질러놓아야 하고...  
그는 피가 나게 대학공부를 하였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력구조물의 건설력사와 앞선 기술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나갔다. ...  
상남에서 깨어난 김창진동무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설계도 조선의것, 앞선 기술도 조선의것이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  
애국열에 불타는 김창진동무와 젊은 설계집단은 교조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

《우리 수력발전소가 그려주신 우리 나라 국장에는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가 당시에 하네비처럼 설기는 외국적인줄 아는가?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발전소엔제를 일제세우고야 마랴오!》  
김창진동무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밖으로 뛰쳐나왔다. 멀리로 건설자들이 부르는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발전소엔제의 터전이 우뚝이 언겨졌다.  
해서인지 그의 눈앞에 전하의 찬상이 생생히 떠올랐다. 쏟아져내리는 줄줄한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던 학교며 마을들... 전쟁이 끝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도 생각났다. 다른 대학이 아닌 평양건설대학(당시)으로 등을 떠밀며 고향의 부모님과 어른들은 말했다.  
대학공부를 잘해서 조선이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인 한국놈들의 코대를 다시 한번 분질러놓아야 하고...  
그는 피가 나게 대학공부를 하였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력구조물의 건설력사와 앞선 기술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나갔다. ...  
상남에서 깨어난 김창진동무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설계도 조선의것, 앞선 기술도 조선의것이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  
애국열에 불타는 김창진동무와 젊은 설계집단은 교조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

《우리 수력발전소가 그려주신 우리 나라 국장에는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가 당시에 하네비처럼 설기는 외국적인줄 아는가?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발전소엔제를 일제세우고야 마랴오!》  
김창진동무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밖으로 뛰쳐나왔다. 멀리로 건설자들이 부르는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발전소엔제의 터전이 우뚝이 언겨졌다.  
해서인지 그의 눈앞에 전하의 찬상이 생생히 떠올랐다. 쏟아져내리는 줄줄한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던 학교며 마을들... 전쟁이 끝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도 생각났다. 다른 대학이 아닌 평양건설대학(당시)으로 등을 떠밀며 고향의 부모님과 어른들은 말했다.  
대학공부를 잘해서 조선이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인 한국놈들의 코대를 다시 한번 분질러놓아야 하고...  
그는 피가 나게 대학공부를 하였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력구조물의 건설력사와 앞선 기술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나갔다. ...  
상남에서 깨어난 김창진동무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설계도 조선의것, 앞선 기술도 조선의것이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  
애국열에 불타는 김창진동무와 젊은 설계집단은 교조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

《우리 수력발전소가 그려주신 우리 나라 국장에는 발전소가 있다. 그 발전소가 당시에 하네비처럼 설기는 외국적인줄 아는가? 우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발전소엔제를 일제세우고야 마랴오!》  
김창진동무는 문을 박차고 사무실밖으로 뛰쳐나왔다. 멀리로 건설자들이 부르는 우렁찬 노래소리와 함께 발전소엔제의 터전이 우뚝이 언겨졌다.  
해서인지 그의 눈앞에 전하의 찬상이 생생히 떠올랐다. 쏟아져내리는 줄줄한데 형체도 없이 무너져내리던 학교며 마을들... 전쟁이 끝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때의 일도 생각났다. 다른 대학이 아닌 평양건설대학(당시)으로 등을 떠밀며 고향의 부모님과 어른들은 말했다.  
대학공부를 잘해서 조선이 100년이 가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지껄인 한국놈들의 코대를 다시 한번 분질러놓아야 하고...  
그는 피가 나게 대학공부를 하였다. 미제와 싸워 이긴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수력구조물의 건설력사와 앞선 기술들을 하나하나 탐구해나갔다. ...  
상남에서 깨어난 김창진동무의 입에서 부지중 이런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설계도 조선의것, 앞선 기술도 조선의것이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그럴만한 힘과 기술이 없다!》  
애국열에 불타는 김창진동무와 젊은 설계집단은 교조주의자들과 기술신비주의자

### 병사의 심장을 간직하라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김창진동무는 당의 의도와 이어나는 현실상에서 인민군인들처럼 추호의 타협도 몰랐다.  
인제인가 어느 한 발전소엔제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즉시 원판부문의 일군들, 기술자들이 현지에도 갔었다. 김창진동무도 현지에 파견되었다. 일군들끼리 인제나 어느 한 구간에 들어서는 순간 김창진동무는 심장이 뚝 멎는 듯싶었다. 사례는 심각하였다. 공회까지 열렸으나 신듯 방도를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오래도록 흐르는 침묵...  
이러한 때 김창진동무가 일어났다. 그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다녔다고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였을 때였다. 이제는 됐고 일군들의 얼굴에 화기가 도는 것을 본 그는 다시 자리에 일어났다.  
《발전소를 하나라도 더 세워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어야 할 이때 막대한 자재와 자금과 로력을 들여 인제보강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들어 뉘어나.



동림군 잠봉리에서 사는 김삼필, 박춘실부부는 자식들이 어엿게 태어나서 총대를 강하게 조국도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주곤 하였다.



이들부부는 인민군후방가축담당민군대원으로서와 인제나 모듬을 보이고있다. 로동불선원 김재성



이들부부는 인민군후방가축담당민군대원으로서와 인제나 모듬을 보이고있다. 로동불선원 김재성

영예군인, 그 부름에 땀땀 하리  
룡천군 읍안의 10여명 영예군인들  
병사로 영연히 살려나가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내주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많은 지원자들을 안고 최첨단발전소건설을 찾았을 때 그들은 건설자들의 위훈이 슬며시 있었는 건설자의 어려움과 고초를 보았다. 그러나 15년이 된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들의 소박한 결의가 담겨진 편지도 보여주셨다. 혁명의 편지를 세고 조국보위 초소에서 위훈을 세우던 어제날처럼 변함없이 조국을 지키는

을 더 듣고싶었다. 하여 그들의 경제선동은 며칠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들과 함께 백 밤, 천밤을 지새우고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예군인 로석원동무의 눈가에 맑은것이 반짝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한 길에서는 우리 원수들의 전사이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 누구의 심장을 두드려보이지 않겠다. 그 부름에 땀땀하기 위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물불을 가리지 않던 그 시절처럼 영예군인들의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이 있다. 지금도 룡천군 읍안의 10여명 영예군인들은 우리 원수들의 발발음에 보복을 맞추며 조국의 방방곡곡 위훈의 창조자들을 찾아 애국의 길을 가고 또 간다. 조국에 인겨준 영예군인들이다. 그 부름에 땀땀하게 살기 위해!》  
본사기자 립 현숙  
본사기자 리 남호



# 미국과 남조선과리들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총련본부 위원장들이 미국과 남조선과리호전파들의 북침핵전쟁연습을 규탄하여 9일 당파들을 발표하였다.

총련 도교도본부 위원장 황명은 미국과 남조선과리호전파들이 내외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기동전 개원 미제침략군과 수반만에 달하는 미제군력여 주축국가군대까지 동원되어 공화국의 수뇌부 《제기》와 《평양전령》을 목표로 강행하는 이 합동군사연습은 극히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과리들의 발악적행동이 우선해결수속 광범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민족대 단결의 기운을 한층 높이고 호전파들의 북침핵전쟁행동을 파국까지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총련 오사까부분부 위원장 장영웅은 미국과 남조선과리호전파들의 전쟁도발행동으로 하여 남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더 긴장되고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추종하여 북침전쟁의 들레로 나선 남조선과리호전파들은 앞으로 초태평양파병후파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명심하고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총련인민들과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와 수호하고 통일의 진한적극면역 마련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분연히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총련 가나가와현본부 위원장 리영훈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 해외 동포인사들과 여러 나라 단체들 담화, 성명 발표

자기를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제기한 공명적대안 방안과 성의있는 노력에 도전해나선 미국이야말로 남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과리호전파들이 팔대조전반도정세를 전쟁으로 끌고간다면 체제전도는 비참한 파멸뿐이라고 경고하였다.

총련 아이제현본부 위원장 장영웅은 미국과 남조선과리호전파들은 무모한 침략수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과리들의 위험천만한 핵전쟁수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온 겨레의 투쟁에 합세하여 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리예선 재조선공민중앙협의회 부회장이 미제와 남조선과리들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수동을 규탄하여 4일 당파를 발표하였다.

당파는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와 인권인민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과리들이 북침핵전쟁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내 버려놓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과리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년대적》,《방어적》,《호련적》이라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자들의 침략적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염마진에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조선을 《공포》시키는것이 미

## 국외 동포인사들과 여러 나라 단체들 담화, 성명 발표

국의 정책목표표고 공개적으로 켈체대 이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공화국의 수뇌부《제기》와 《평양전령》을 목표로 감행되는 극히 도발적이며 공격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이라고 단죄하였다.

공화국은 조국해방 70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외세의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그만두고 북남관계에서의 대결, 대면력을 가져올 때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대담하고도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미제와 남조선과리들은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도전해나섰다고 규탄하였다.

현실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며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 전쟁행진에 대한 대담하고도 성의있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과리들은 이제라도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당장 접어치워야 한다고 담화는 강조하였다.

\* \* \*

나이제리아, 도이쉴란드단체인 남조선과리호전파들의 합동군사연습을 단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는 4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에 돌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완정을 만장하키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내외의 강력한

# 특대형범죄의 대가를 피로써 치르어야 한다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그의 옷자락에 매달리는것을 락으로 여기는 피로보수배당은 지금껏 반미는 곧 《총복》이라고 우기며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진보민주세력을 무장추위와 권질시켜 탄압해왔다. 그 더러운 악습이 최근에 있는 미국대사웅장사를 계기로 히스메라적으로 발착하고있다.

남조선의 구우보수정파자들은 총출동되어 도처에서 그 무슨 《총복세력규탄국민대회》니 뭐니 하는 판관국을 펼쳐놓고있다. 매번 천 번발을 치며 해운하는 총복세력들과 《교역계전우회》를 비롯한 구우보수단체의 강대들은 우리의 신성한 최고 존엄과 공화국기를 감히 모독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것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그런가하면 용매문자들은 《리적성이 확인된 단계》는 얼마라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원》은 얼마라니 하는 식으로 진보민주세력을 《총복》으로 몰아대며 그들을 모조리 숙청해야 한다 고 벌써 떠들고있다. 그야말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천미, 동족대결의 너털한 죽가마가 설 실 끊고있다.

사실 미국대사웅장사건은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가는 미국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한결 같은 분노와 항의의 표시이다. 하지만 천미에 켜둘레로 켜든 피로보수배당은 서울에 와있는 상전이 변을 당하자 숨이 넘어갈 정도로 야단 치면서 《총복》판공을 넘겨대다 못해 나중에는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 공화국까지 걸고들며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천치수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험악하게 만든것은 다른 아닌 피로보수배당이다. 그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 무슨 미국과의 동맹의 《심장을 겨는 공격》이라고 피대를 든우면서 《배후세력을 색출》하라고 고대했다. 그에 따라 피로보당은 《근급안전보장회의》, 《당정청고위급협의회》니 하는것을 잇달아 열고 사건을 《총복세력이 저지른 사

건》으로 결론지었으며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니 하고 악행을 뽐내었다.

독재권력의 하수인인 피로보수배당과 검찰도 미국의 침략행동을 반대하는 의로운 행동을 《테러》로 둔갑시키고 지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안법》위반혐의를 운운하며 어마어마한 수사력량을 편성하여 강도높은 수사소동을 벌리고있다. 바로 이런 실정하 분위기술에 구우보수정파자들이 무무하게도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중상모독하는 치명리는 만동을 부린것이다. 이번의 특대형도발행위 파로피로보당의 사측과 배후추종에 의해 감행된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껏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는 특대형도발행위들이 한두번만 감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극악한 도발은 처음이다. 현실은 피로보당이 천 미시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렸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침략전쟁행동을 반대하는 진보민주세력을 《총복》으로 몰아 대항해버리는것으로 상징되지 않아 동족까지 마구 걸고들며 천인공도할 대결판대국을 서슴없이 펼쳐놓고있는 피로보당이야말로 씨도 없이 죽창쳐버려야 할 대국 적악당이요.

생명보다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릴수는 애당초 이 하늘아에서 살아살 수 없는 자들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늘부수운을 모르고 예컨대 특대형범죄행위를 마구 저지르는 역적배당에 대한 우리의 준엄한 경고이다. 이번에도 피로보당을 비롯한 피로보당의 몸서리치는 악행은 침략자와 대국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해 최후결전에 총력기해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행위를 더욱 치우게 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선 피로보당의 그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천 배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허 영 민

도적인 매를 단다는 말이 있다.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국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한 피로보들이 도리어 제편에서 《도발》이니 뭐니 하는 뻔뻔스러운 소리를 내지르고있다. 얼마전 피로보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는 우리의 자위적외교에 대해 그 무슨 《결의위반》이니, 《도발적행위》니 뭐니 하는 파렴치한 꾀변을 늘어놓았다. 그보다 앞서서는 저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 놓은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방위》를 위해 년대적으로 실시하는 호련》이기 때문에 북남관계와 관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열도당도 않은 수작을 내뱉으면서 《북이 도발하면 강력대응》하겠다고 핑기부 부했다. 피로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것은 저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 놓은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위적외교라는것이다. 이야말로 남을 위협하며 군사적도발을 일삼는것을 체질화한자들의 날강도적인 생

역지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전역이 감행되고있는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각종 최첨단정장비들을 투입한 최첨단파병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기습과 핵선제공격후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연습에 처음으로 참가한 미해군의 연안전투함 《포트윈》호외에도 이지스구축함

해 《대화국면을 물거품으로 만든 범죄행위》, 《전쟁행위의 가능성 한층 고조시킨 모험》이라고 비난하면서 무분별한 전쟁행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바빠있는 피로보들이 생생같이 우리를 걸고들었다. 그것이 정세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무모한 불장난수동에 대한 내외의 규탄어론을 모면해보려는 술책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피로보들은 자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 나발을 지껄기 불어넣는수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호전적행태만을 더욱 드러내보일뿐이다. 지금 피로보들이 편이여 끌어들이는 미국의 침략행위를 믿고 《강력대응》이니 뭐니 하며 허세를 부리고있는게 가소롭지 그치않다. 피로호전파들이 미국과 함께 북침불장난수동에 미쳐달리며 우리의 신성한 명예, 명로, 평등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 혁명무력은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III

재앙을 낳는 독재자의 정보정치

권자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으로 야당투표자를 마구 비방중상하는 모략국들을 대항적으로 류포시키며 불법적인 여론조작행위를 감행하였다. 집권전 정보원이 펼친 모략공작의 덕을 똑똑히 입은대가가 이미 예비대부러 정보정치적 영향을 받은 옛 남조선당국자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정보원을 손발처럼 써 먹었다.

피로보당국자는 집권 전 시기부터 《유신》안당들을 정보원으로 들여놓고 구시대적인 파쇼독재통치에 매달리었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행위 일만이 폭로되어 집권위기가 조성되자 북남수사수상당파복사자들을 조작하고 당시 집권총리 원 장남재준을 부추겨 담화록을 전면공개하는 당물을 부렸다.

또한 자위,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을 《총복》세력으로 몰아 가족하게 만들었다. 리적시비연모사건 조작과 통합진보당경제예산 부각, 조국통일위원회탄핵 압축본부와 전국국회직원투소추항에 대한 탄압수동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특히 지중 반역총서로 하여 인심을 완전히 잃고 락대 최악의 《정권》시기에 몰린 피로보 권력은 위기가부리의 불륜을 사회를 더욱 파쇼화하는데서 찾고 정보원을 비롯한 폭압기자들이 발동하여 《유신》독재부활에 갈수록 기세를 부리고있다. 최근

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말이 뇌가했었다. 이런 악질적인 대결미치판을 청와대 비서실장자리에 올려놓았는는 가족이나 친악한 북남관계가 더 엄중한 파국상태에 빠져도 무방하다는 피로보당국자의 흉악한 심보를 잘 알수 있게 한다. 모략과 음모, 악의 소굴인 피로보당에 의거하여 추진위자를 마한가지로 정보원을 실권화하는 남조선집권자의 망동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도, 북남관계개조도 기대할수 없었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정보원 원장총회의 청와대 비서실장노릇을 하게 된 결과 《유신》파쇼독재가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본다. 력서는 피로보정보원이야말로 북남관계개조의 커다란 악적존엄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력사적 인민들은 《총복》세력으로부터 자유로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렇듯 피로보당국자를 제거하는 정쟁을 부추겨보려고 발광하는 피로보당의 술책이 통할 리 만무하다. 《유신》독재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파쇼복합기구에 의지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쟁에는 다 비참한 중담을 고향하고야말것이다. 정보원을 끼고 그에 매달려 자들도 다들인정보원배로 파는이 되어 날뛰는 현 피로보당국자는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필대로 면하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III

조소를 자아내는 도발자들의 생역지

《마이클 머피》호, 《라센》호, 《존 에. 맥케인》호를 비롯한 대형 전투함선들과 무장정수기, 초계기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을 돌아치며 북침실동훈련을 벌리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전쟁장비들이 투입되게 되어있다.

호전파들은 이번 연습에서 국지도발공동대미계획, 맞춤형형 제전략 등 각종 전쟁장비들을 다 적용하려고 한다. 그것은 지금 감행되고있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구실로도

북침전쟁연습으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군사연습의 간판아래 투입된 미국과 피로보들의 방대한 무기는 북침공격을 나설 준비를 이미 갖추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주변국가들까지 신경을 바작 다사라고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시사각각으로 예민하게 주의하고있다. 피로보당이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방어호련》이라고 우기며 오히려 우리에게 지탄을 가투를 부리고있고 남침을 더욱 드러내보일뿐이다. 지금 피로보들이 편이여 끌어들이는 미국의 침략행위를 믿고 《강력대응》이니 뭐니 하며 허세를 부리고있는게 가소롭지 그치않다. 피로호전파들이 미국과 함께 북침불장난수동에 미쳐달리며 우리의 신성한 명예, 명로, 평등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 혁명무력은 도발자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III

일본의 전쟁범죄를 감싸주는 미국을 규탄하다

아주기 위해 전쟁범죄를 감싸주고 남조선, 미국, 일본사이 3각 군사동맹수속에 매달리는 미국을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국정부가 미국무성 정부차관에 책임을 따질것을 요구차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정계인사들 발표

《보고서》라는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정보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변자들이 고안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일어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투철을 인권과 자유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삼고있는 죽음의 계급으로서 끊임없는 류렬로 생존해오고 있다.

암흑은 평평을 압도할수 없다. 조선의 정기가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기때문에 바로 미국은 조선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필자는 미국정부는 인간살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상세히 까발렸다.

조선의 인권현실을 두려워하는 미국

로씨야정계인사들 발표

《보고서》라는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정보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변자들이 고안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일어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투철을 인권과 자유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삼고있는 죽음의 계급으로서 끊임없는 류렬로 생존해오고 있다.

암흑은 평평을 압도할수 없다. 조선의 정기가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기때문에 바로 미국은 조선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필자는 미국정부는 인간살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상세히 까발렸다.

조선의 인권현실을 두려워하는 미국

로씨야정계인사들 발표

《보고서》라는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정보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변자들이 고안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일어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투철을 인권과 자유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삼고있는 죽음의 계급으로서 끊임없는 류렬로 생존해오고 있다.

암흑은 평평을 압도할수 없다. 조선의 정기가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기때문에 바로 미국은 조선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필자는 미국정부는 인간살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상세히 까발렸다.

## 일본의 전쟁범죄를 감싸주는 미국을 규탄하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소속 성원들이 과거 일본의 침략범죄를 비호하는 미국을 규탄하여 3일 피로청와대와 남조선총리 미국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렸다. 시위자들은 얼마전 미국무성 정부차관이 일

## 남조선단체성원들 시위투쟁

본의 반인륜적전쟁범죄에 대한 사회와 책임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동을 감행한수나 받으려는 행동을 비하했다고 규탄하였다. 동우기 이 정당한 요구를 《도

## 조선의 인권현실을 두려워하는 미국

로씨야정계인사들 발표

《보고서》라는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정보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변자들이 고안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일어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투철을 인권과 자유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삼고있는 죽음의 계급으로서 끊임없는 류렬로 생존해오고 있다.

암흑은 평평을 압도할수 없다. 조선의 정기가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기때문에 바로 미국은 조선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필자는 미국정부는 인간살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상세히 까발렸다.

##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얼마전 벨기에인사 《노보 라보르니체스코 델》호 론평을 게재하였다. 론평은 미국 등 서방이 조선을 《인권범죄자》로 몰아붙이고있는것은 조선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선의 사회주의를 말살하고 자본주의에 돌려세워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고 까뻐했다.

이것은 미국 등 서방이 아무리 우리의 지도도 없는 《인권문제》를 떠들어도 국제사회를 기만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한번이라도 목격한 사람들은 서방인들이 떠드는 조선의 《인권상황》이란 날조된 꾀변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은 인권의 천국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감이 골수에까지 짝 들어찬 미국은 반공화국《인권》소동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성을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압박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무력침공의 명분을 마련해보려고 அரச적책 동화하고있다. 미국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압살이다.

원래 미제는 흑백을 전도하고 미국과 날조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데 이렇고 남 강도의 무리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북침전쟁을 도발한 방법도 미국이고 바르보만사건을 조작하여 월남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한 장본인도 미국이며 《대항상상무기제기》라는 모략극을 날조하여 이라크를 라포았겼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지금에 와서 는 오바마당일이 우리의 지도도 없는 《인권문제》를 날조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쓰니 퍼처스》에 대한 핵정공격의 《복소형》설을 내뿜으며 우리의 영성을 깎아내리려고 அரச적책 동화하고있다. 최근에는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이 우리의 수뇌부《제기》와 《평양전령》을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에 놀라거나 압력에 순종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진지는 더욱 탄적같이 다져지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 및 발사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펼치고있다.

사실상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중지에 빠진자들의 단말미적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떠드는 우리의 《인권문제》라는것은 공화국에서 쉴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간소스페기들의 허위준언에 기초하여 조작된것이다. 바로 여기에 반공화국《인권》소동의 허황성이 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사회적인 행위력을 파괴하고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쓰디쓴 참예만을 가져오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이다.

진짜인권문제는 미국에 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이며 미국의 력사는 인권유린의 수치스러운 력사이다. 여러 나라들이 발표한 미국인권실태보고서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현실은 인권실태는 세계의 조소와 비난거리로 똬지 오래다.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이 저지른 인권유린행위부터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권》소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림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추악한 망상으로 연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민은 불멸의 권력과 입심단결의 위력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단호히 짓밟아버릴것이다.

박 중 영

경제 침체, 실업자 증대

일본국도교통성은 2월 27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월에 전국적인 살림집건설착공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 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것은 연속 11개월째의 감소로 기록하였다. 이 기간 나라의 자동차생산량은 9.7% 떨어졌다.

또한 프랑스의 소매업체들이 불경기에 시달리고있다.

2월 24일 이 나라 통계국은 소매업체들의 경영형편에 대한 기업가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지수가 한달전에 비해 4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에서 심각한 경제침체의 후파로 주민들의 재정형편이 악화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1월에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지출액이 지난해 12월에 비

## 조선의 인권현실을 두려워하는 미국

로씨야정계인사들 발표

《보고서》라는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정보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변자들이 고안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일어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투철을 인권과 자유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삼고있는 죽음의 계급으로서 끊임없는 류렬로 생존해오고 있다.

암흑은 평평을 압도할수 없다. 조선의 정기가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기때문에 바로 미국은 조선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필자는 미국정부는 인간살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상세히 까발렸다.

## 조선의 인권현실을 두려워하는 미국

로씨야정계인사들 발표

《보고서》라는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정보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변자들이 고안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일어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투철을 인권과 자유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삼고있는 죽음의 계급으로서 끊임없는 류렬로 생존해오고 있다.

암흑은 평평을 압도할수 없다. 조선의 정기가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되어있기때문에 바로 미국은 조선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필자는 미국정부는 인간살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상세히 까발렸다.



이스라엘의 침략행위에 항거하는 팔레스타인인들